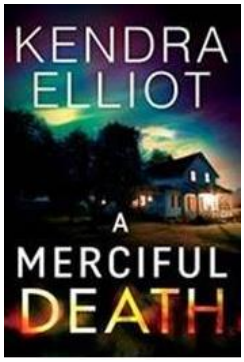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A MERCIFUL DEATH
가제 : 자비로운 죽음
저자 : Kendra Elliot
출판사: Montlake Romance
발행일: 2017년 1월 17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노르웨이, 터키, 헝가리 판권 계약 / 워너브라더스 TV 시리즈로 제작 예정**
*** 아마존 2017 베스트 로맨스 소설,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초판 85만 부 이상 판매**

종말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가족과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집과 주변 환경은 총격과 폭격을 비롯한 어떠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정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티오트워키(TEOTWAWKI)'라는 낯선 줄임말로 불리는 이 생존 대비 기술은 '우리가 익히 알던 세상의 종말'이라는, 다소 알쏭달쏭한 의미가 담긴 생활 원칙으로 실제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도시 문명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곧 TV 시리즈로도 제작될 예정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새로운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에는 이러한 종말론자들이 모여 사는 미국 오리건 주의 외딴 마을이 등장한다. 수십 년째 철저한 생존주의를 지키며 모여 살던 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연이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지역 특성상 턱 없이 부족한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FBI 특수요원 두 사람이 지원을 나간다. 그 중 한 명인 머시 킬패트릭은 세 번째로 희생당한 주민의 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보통 사람들 눈에는 쓰레기장으로 보이는 그 집의 너저분하고 정신 없는 외관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다. 15년 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그 밤이 찾아오기 전까지, 머시 킬패트릭도 바로 이 마을에 살았기 때문이다. 생존주의 공동체의 두 수장 중 한 사람인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으로 어린 시절부터 총 쏘는 법을 배우고, 야생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며 고립된 채 살았던 곳, 다시 돌아온 마을에서 머시는 피로 엮인 가족처럼 똘똘 뭉쳐진 이 독특한 공동체 안에 섬뜩한 살인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15년 전, 저 멀리 사라진 줄 알았던 흉악한 범죄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머시와 동료 에디 형사가 '이글스 네스트'라 불리는 이 구석진 마을까지 오기 전에 이미 두

사람의 생존주의 추종자가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희한한 점은 세 명의 희생자 모두 자신의 집에서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 강제로 침입하거나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답게 모든 희생자가 합법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몰래 보관해둔 무기가 꽤 많았는데 살해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다. 신고되지 않은 무기류라 지역 경찰도 어떤 무기가 얼마나 살인자의 손에 들어갔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확실한 건 희생자들이 무기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따로 큰 공간을 마련하고 그냥 길이나 풀숲처럼 철저히 위장해둔 곳을 범인이 정확히 알아내고 그곳을 파내서 싹 털어갔다는 사실이다. FBI에서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중 누군가 이 훔친 방대한 양의 무기로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머시와 에디를 급파했지만, 사건 현장을 둘러본 머시는 테러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연쇄살인범의 소행임을 깨닫는다. 살해된 사람들의 집은 크고 작은 거울이 전부 박살 난 채로 발견됐는데, 이 기이한 흔적은 머시에게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오빠, 언니와 함께 겪은 그 날의 사건,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약속한 세 남매의 비밀로 묻어버린 사건이 되살아난 듯한 광경이었다.

15년 전, 머시의 부모님은 주 경계를 넘어 장을 보러 갔다. 이글스 네스트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장비와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가끔 그렇게 장거리 쇼핑을 가곤 했는데, 그 날은 마을에서 두 여성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 직후라 엄마는 계속 불안해했다. 하지만 세 남매를 직접 훈련시키고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온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안심시키며 먼 길을 떠났다. 하지만 엄마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머시가 느지막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 바닥에 언니 로즈가 피를 흘리며 왠 남자 밑에 깔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괴한은 번개같이 머시에게 다가와 바닥에 쓰러뜨리고 목을 꺾었지만 머시는 순간적인 기회를 노려 그를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덜덜 떠는 언니의 손에서 권총을 받아 들고 부리나케 도망가는 남자를 뒤쫓았다. 마침 집에 들어오던 오빠도 사태를 파악하고 그를 쫓았고, 오빠와 머시가 쏜 총에 범인은 등을 맞고 쓰러졌다. 문제는 그 때부터 시작이었다. 절대 신고하면 안 된다는 오빠의 고집으로 머시와 언니는 피범벅이 된 집안을 청소했고 그 사이 오빠는 죽은 범인을 땅에 묻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날 언니를 덮친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비밀은 머시가 가족들과 연을 끊고 달아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머시는 다시 돌아온 범인이 어쩌면 자신과 가족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이 '케이브 맨'이라 부르는 수상한 인물을 파헤치면서 그에게 삼촌이 살해 당한 지역 경찰서장 트루먼과 합동 수사를 시작한다. 독특한 공동체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켄드라 엘리엇(Kendra Elliot)은 『Bone Secrets』 시리즈, 『Callahan & McLane』 시리즈 등 수많은 책을 발표한 소설가다. 2014년과 2015년에 대프니 듀 모리에(Daphne du Maurier) 베스트 로맨틱 서스펜스 상을 수상하고 국제 스릴러 작가협회 최우수 페이퍼백 결승, 「로맨틱 타임스」 베스트 로맨틱 서스펜스 결승에 올랐다. 현재까지 발표한 소설은 총 10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아마존 퍼블리싱으로 판매된 것만 500만 부 이상 판매됐다.

제목 : IN STRANGERS` HOUSES
가제 : 고객님의 집
저자 : Elizabeth Mundy
출판사: Constable
발행일: 2018년 2월 8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범죄스릴러소설

*** "주인공의 끈기와 상식이 흥미로운 이야기에 빛을 밝히는 소설" - 「데일리 메일」**
*** "다문화 시대에 꼭 알맞은, 잘 쓴 범죄소설" - 소설가 바심 칸(Vaseem Khan)**

우리 대부분은 밖으로 나가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있을 때의 모습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집에서 편안히 있을 때의 모습과 같지 않다. 겉모습은 물론이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달라진다. 그래서 가족이나 아주 친한 사람을 제외하면 우리는 그런 내밀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가장 일상적인 모습을 알아채고, 심지어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가 생활하는 공간, 집을 집주인보다도 더 구석구석 살피는 사람, 가사도우미다. 헝가리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다섯 자녀를 기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작가는 이 데뷔소설에서 런던 어느 부자 동네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헝가리 이민자의 날카로운 눈에 비친 화려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지저분한 진실을 그린다. 하루에도 몇 집씩 방문해서 그 집 사람은 절대 들여다보지도 않는 카펫 아래와 소파 밑은 물론 먼지와 오물이 잔뜩 쌓인 집안 곳곳을 청소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서른한 살의 헝가리 이민자 레나는 향기롭고 멋들어진 차림 뒤에 숨겨진 집주인들의 진짜 모습을 그들이 던져놓고 간 세탁물과 집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물건 사용하는 습관으로 예리하게 간파해 해온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젖먹이 어린아이를 놓고 돈을 벌기 위해 런던으로 온 친구이자 친 여동생과 다름 없는 티미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탐정 기질을 십분 발휘하여 티미아의 행방을 쫓기 시작한 레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저분한 가진 자들의 추악함과 역시나 다 안다고 생각했던 티미아의 가슴 아픈 비밀을 찾아낸다.

티미아가 사라진 월요일은 출근길부터 불길한 조짐이 연이어 나타났다. 혼잡한 런던 시내를 가로질러 바쁘게 걸어가는 동안, 레나는 티미아의 안색이 부쩍 창백하다고 느낀다. 두 사람이 청소 일을 하는 집들은 모두 가까이 붙어 있고 어떤 집에서는 둘이 함께 일을 하기도 했으므로, 레나레 쓰러질 듯 기운이 없는 티미아에게 힘들면 하루 쉬라고 권했다. 하지만 티미아는 예상대로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했고, 멀리 헝가리에 두고 온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힘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도 했다. 어릴 때부터 친 여동생처럼 티미아를 아끼는 레나는 매번 형편없는 남자에게 넘어가 마음을 홀랑 빼앗기고 뒤늦게 남자들이 본색을 드러내면 펑펑 울며 힘들어하는 티미아가 늘 불안하고 안타까웠다. 티미아는 마음이 여리고 심지가 굳지 못해서 어딜 가나 이용당하고 버림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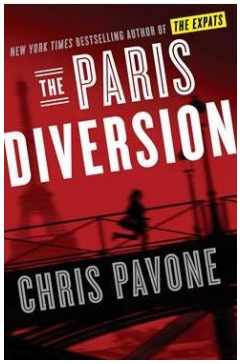
기 쉬운 타입이었고, 레나는 다 큰 성인인데다 아이까지 있는 티미아를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보살폈다. 그런데 그 날, 티미아는 청소를 하던 중 소파에 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다. 또 반복됐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헝가리로 돌아가고 싶어, 같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으며 울먹이던 티미아는 무슨 일인지 털어놓으라는 레나의 거듭된 설득에도 끝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오늘 일을 다 마친 다음에,'진실이 드러나면' 저녁에 집에서 다 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첫 번째 집 청소를 끝내고 헤어졌는데, 그것이 레나가 본 티미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날 티미아는 함께 사는 아파트로 돌아오지 않았고 3일이 지나도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레나는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는다. 티미아가 물에 빠진 시체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티미아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짓고 제대로 된 조사도 시작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연휴에 고향에 돌아가 아들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하다니? 레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챈다. 이민자라서, 게다가 돈도 없고 가족도 없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런던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도 경찰조차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 레나는 티미아를 이 지경으로 내몬 범인을 직접 찾아내기로 결심한다.

레나의 끈질긴 추궁과 이의제기로 경찰은 마지못해 수사를 도와줄 형사를 배정하지만, 경찰대학을 갓 졸업한 신참 순경 카트라이트에게 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맡긴 건 누가 봐도 성의 없는 대처였다. 스스로도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카트라이트 순경은 이론만 아는 모범생 멍청이로 여기는 선배 경찰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마음 먹고 레나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건을 파헤친다. 레나는 티미아가 실종되기 직전에 울먹이던 날 일하는 곳 중 한 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슬쩍 언급한 것을 기억하고, 티미아가 일하던 곳에서 직접 청소를 하면서 수상쩍은 낌새가 없는지 살피기로 한다. 멀쩡한 사업가인 척 살고 있지만 알고 보니 이민자들을 이용해 마약 거래를 하는 마피아, 방송인인 아내를 두드려 패는 남편을 비롯해 번드르르한 겉모습과 전혀 다른 집주인들의 정체와 함께 레나는 티미아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도 찾아낸다. 티미아가 임신한 상태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아이 아버지를 찾는 일에 몰두하던 레나의 수사는 역시나 런던에서 살고 있던 고향 친구 이스트반까지 합류하면서 가속이 붙는다. 청소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온 레나와 달리 크게 성공한 사업가로 몰라보게 바뀐 이스트반은 티미아와 오래 전 사랑하던 사이였고, 레나는 그 감정이 남아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과연 티미아가 죽기 전,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 이스트반의 아내는 그런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레나의 수사망이 좁혀질수록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범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엘리자베스 문디(Elizabeth Mundy)는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현재 런던 투자회사에서 마케팅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제목 : THE PARIS DIVERSION
가제 : 파리 작전
저자 : Chris Pavone
출판사: Crown
발행일: 2019년 5월 7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스릴러소설



* **"쉴 새 없이 내달리는 모험과 가족, 용기, 책임감,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맺는 좋고 나쁜 관계에 관한 깊이 있고 지혜로운 명상을 느낄 수 있는 이례적인 성취"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Cutting Edge』의 작가 제프리 데버**
* **"단 12시간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이 100 mph의 속도로 펼쳐지는 스릴러" - 소설가 켄 폴릿**

오전 9시가 다 되어 가는 평일 아침, 5년째 파리에서 살고 있는 케이트는 여느 때와 같이 아이들 학교 교문 앞에 다른 엄마들과 함께 서 있다. 높다랗고 튼튼한 울타리와 거대한 문 너머로 아이들을 들여보내기 전, 다양한 피부색과 국적을 가진 엄마들은 저마다 호들갑스럽게 아이들과 끌어안고 뽀뽀를 하며 작별 인사를 나눈다.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영 어색한 케이트는 건성으로 그 일상적인 의식에 참여하다가,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챈다. 소리가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가늠하기 시작한 케이트는 주변 행인들과 엄마들을 둘러보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다. 룩셈부르크, 런던, 뉴욕, 뭄바이, 홍콩까지, 그 동안 수많은 도시에 머물면서 파리처럼 고요한 도시는 없었다. 특히 아침 이 시간대에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일은 극히 드물었고, 샤를리 에브도 사건 이후로는 더더욱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다. 케이트의 직업적인 직감은 정확했다. 그곳 국제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화려한 관광지에 같은 시각 한 남자가 두툼한 조끼를 입고 나타났다. 가슴 양쪽에 폭탄이 주렁주렁 매달린, 자살폭탄 조끼였다.

흡입력 있는 스릴러 시리즈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는 에드가 상을 수상한 전작 『THE EXPATS』의 두 주인공인 케이트와 남편 덱스터가 등장하는 신작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를 완성했다. 해외를 떠돌며 치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CIA 요원으로 등장했던 케이트와 복잡한 거래에 휘말려 위기에 처한 인물로 그려진 덱스터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서 또 다른 위험과 직면한다. 파리 전체를 뒤집은 테러 사건이 전개되는 12시간 동안 케이트와 덱스터, 거물급 기업인 헌터와 테러범 마흐무드의 시선을 번갈아 따라가며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복잡한 사건의 내막을 조금씩 드러내는 이 시리즈에서 작가는 파리 전체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음모와 개개인의 사연이 축적되어 왔는지 특유의 능수능란한 솜씨로 풀어낸다.

마흐무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폭탄이 설치된 조끼를 입거나, 그냥 탁 트인 광장에서 파리의 가장 솜씨 좋은 저격수가 쏜 총을 맞거나,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였다. 이집트를 떠나고 싶어 한 건 마흐무드가 아니었다. 아내 닐라의 설득에 못 이겨 이 화려한 도시에 두 발을 디딘

마흐무드는 몇 년 사이에 분노와 증오만 남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손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병든 몸은 어차피 가난한 외국인의 처지로는 이룰 수 없었던 안정적인 삶이 더더욱 멀어졌음을 선명하게 알려준 신호탄이 되었다. 죄 없는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절망만 남은 그에게 턱수염을 말끔하게 다듬은 남자가 다가왔다. 미국인이 분명한 영어 억양으로 그는 희망도, 미래도 없는 아이들을 이집트로 돌려보내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뒤에 남은 가족들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어차피 암 덩어리를 이기지도 못할 몸, 조금 더 일찍 직접 생명을 꺼뜨리는 것으로 자신은 평생 벌어도 줄 수 없는 안락한 삶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마흐무드는 폭탄 조끼를 택했다. 정말로 그 옷을 입고 루브르 박물관 앞에 서서 얇은 바람막이 점퍼를 벗어 들기 전까지 수없이 눈물 짓고 고민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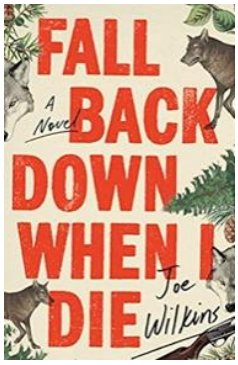
센 강 건너, 에펠탑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고급 빌딩 펜트하우스에는 헌터가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이했다. 다섯 명의 개인비서 중에서도 그가 남몰래 품기 시작한 사적인 감정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콜레트를 가끔 두 눈으로 힐끗 거리면서 내일로 바짝 다가온 대대적인 거래 생각에 집중했다. 이미 파리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대표인 그는 또 한 차례 대규모 합병을 통해 지금보다 수백 배는 더 큰 부를 거머쥘 예정이었다. 늘 치밀한 계산으로 실수가 없었던 그의 예상대로만 흘러간다면 회사의 주식 가치는 합병 이후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그의 금고는 배로 불어날 것이다. 그러면 전용기도 사고, 아내와 콜레트의 남편 몰래 콜레트를 마침내 품을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하는 꿈 같은 생각에 젖어 있던 헌터는 시내 쪽에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를 듣는다. 공공 경찰을 개인 경호원처럼 쓴 지 오래인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건물 밖에 배치되어 있던 여러 명의 경찰들이 일제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TV를 켜자 리옹 역에서 테러 시도가 있었다는 속보가 흘러나왔지만 헌터는 개의치 않았다.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건, 갈 길에 방해만 안 되면 관심이 없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미국인들이 펜트하우스를 점령하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자, 헌터는 그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음을 깨닫는다.

학부모들과의 달갑지 않은 저녁 파티를 준비하던 케이트, 아내 몰래 또 한 몫 크게 거머쥘 위험한 투자를 준비하던 덱스터, 아이들을 위해 폭탄이 되어버린 마흐무드, 그리고 철옹성 인줄 알았던 보안 체계가 정체불명의 괴한이 이끄는 집단에 휴지처럼 뚫려버린 헌터까지, 소설은 이 네 사람이 같은 시각에 겪는 제각기 다른 사건들을 통해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와 뒤에서 이를 치밀하게 조종해온 집단과 케이트의 가족들까지 포함된 뜻밖의 관계들이 만든 참사를 그린다. 박진감 가득한 스파이 소설이자 파리에 사는 외국인들의 현실을 날카롭게 조명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 파본(Chris Pavone)은 에드가 상과 앤소니 상을 수상하고 CBS 필름을 통해 영화로 제작 중인 소설 『THE EXPATS』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THE ACCIDENT』, 『THE TRAVELERS』를 쓴 작가다. 코넬 대학교를 졸업하고 20여 년간 출판계에서 편집자로 일한 경력이 있다.

제목 : FALL BACK DOWN WHEN I DIE
가제 : 죽음 뒤에 낭떠러지
저자 : Joe Wilkins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9년 3월 12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프랑스 판권 계약
* "간결하고, 진정성 있게 21세기 서구 사회를 그린 명작. 저자의 문장은 이야기의 배경인 몬타나 지역만큼 탄탄하고 아름답다. 모든 면에서 극도로 놀라운 소설" - 베스트셀러 『Shotgun Lovesongs』의 저자 니콜라스 버틀러
* "고단한 삶, 쓸쓸한 희망을 가슴에 사무치는 이야기로 그리며 특별한 경지에 오른 소설. 아무리 칭찬해도 충분하지 않을 작품이다" - 퓰리처 상 결승에 오른 소설가 루이 알베르토 우레아

태어나 지금까지 몬타나 주 깊은 산 속 트레일러에서 살아온 웬델 뉴먼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온다. 수확 철이라 하루 종일 콤바인에 앉아 드넓은 밭을 오가느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를 뒤집어쓰고 여기저기 기름 때가 묻은 그를 찬찬히 조심스럽게 살피던 방문객은 자신을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했다. 바로 옆에는 작은 꼬마가 서 있었는데, 웬델은 그 아이가 조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형제자매 하나 없이 엄마와 단둘이 살았는데 조카라니? 하지만 웬델의 머릿속에 금세 레이시가 떠올랐다. 웬델의 삼촌이 돈을 벌러 멀리 떠나고 꼬박꼬박 오던 편지마저 뜸해진 후 웬델의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았던 사촌누나, 십대 후반까지 단짝 친구처럼 꼭 붙어 지내면서 엉뚱한 장난도 많이 치고 오밤중에 산속을 함께 떠돌기도 했던 그 누나가 낳은 아이라는 이야기였다. 웬델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 특히 어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나지막이 전해준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었다. 이름이 라우디라는 난생 처음 본 조카가 텅 빈 아파트에서 일주일 넘게 혼자 갇혀 있었고,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충격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으며 이후 말을 거의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인지, 심리적인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라우디의 새파란 두 눈을 보면서 웬델은 레이시와의 무수한 추억을 떠올렸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던 트레일러에는 그렇게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 스물 넷,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라 생각할 만한 나이지만 웬델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는 어릴 때 사라졌고 남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피땀 흘려 일했지만 엄마 병원비와 약값을 제대로 대기도 역부족이었다. 오랫동안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던 엄마는 아무 소용도 없었던 수술로 마지막 남은 기력까지 모두 잃고 웬델의 곁을 떠났다. 남은 건 일 년 째 밀린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부모님이 내지 않아 그대로 넘어온 밀린 세금이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0달러 남짓에 하루하

루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한창 잘 먹고 사랑 받아야 할 어린아이를 돌보다니,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웬델은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두 눈과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행동이 거세지는 라우디가 처음부터 좋았다. 그냥 보듬어주고 싶었다. 마약에 빠져 스스로 삶을 망쳐버린 레이시가 아이에게 어떤 몹쓸 기억을 남겼는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 보살펴주고 싶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고, 천천히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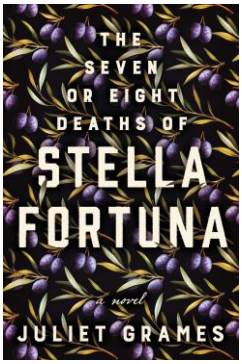
웬델은 주로 글렌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 아버지처럼 마을 토박이인 글렌은 입도 거칠고 걸핏하면 투덜댔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라우디가 갑자기 식구가 된 다음 날, 웬델이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서 곁에 두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을 때도 글렌은 선선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웬델과 라우디의 생활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무렵, 웬델에게 매디라는 또래 여학생이 나타난다. 매디는 그가 사는 외딴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교감을 맡고 있는 질리언의 딸로, 시내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웬델을 처음 본 후 라우디가 읽을 만한 책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사실 매디는 웬델이 평생을 살아온 산 중턱의 마을 델피아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 엄마가 왠지 모르게 이야기하기를 꺼려 하는 아빠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웬델에게서 델피아에 관한 이야기를, 어쩌면 엄마가 말해주지 않는 아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매디는 그와 친해지기로 결심하지만, 그것이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 델피아를 비롯한 마을 전체는 다른 곳과는 다른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늑대 사냥이 오바마의 당선으로 처음으로 거의 30년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오랜 세월, 산에서 늑대며 코요테가 언제 나타나 가축을 해치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지 몰라 불안에 떨면서도 사냥 금지법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생명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냥이 가능해지는 첫날, 모두가 라이플을 가지고 나와 모조리 없애버릴 계획도 세워졌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질리언은 겨우 눌러둔 악몽이 되살아나는 기분에 주저앉고 만다. 그녀의 남편이자 매디의 아빠, 케빈은 여우 사냥에 앞장섰던 웬델의 부친, 벌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그와 기약 없는 사냥에 나섰다가 바로 그 친구 손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벌과 케빈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처럼 벌은 정말 살인자일까? 매디와 웬델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점점 가까워지고, 마침내 여우 사냥이 벌어진 날, 웬델은 영문도 모른 채 총을 든 사람들에게 공격 당하고 라우디를 지키려다 살인을 저지르고 만다. 목숨 바쳐 지키고픈 존재를 위한 묵묵한 희생,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진심,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거칠고 처절한 삶과 대를 이어 전해지는 상처를 여러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선명하면서도 따뜻한 그림처럼 그린 멋진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조 윌킨스(Joe Wilkins)는 회고록 『The Mountain and the Fathers』로 GLCA 신인작가상 논픽션 부문을 수상했다. 「하버드 리뷰」, 「조지아 리뷰」, 「슬레이트」 등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푸시카트 상을 수상하고 내셔널 매거진 어워드, PEN/USA 어워드 결승에 올랐다. 현재 오리건 주 린필드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글을 쓰고 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SEVEN OR EIGHT DEATHS OF STELLA FORTUNA
가제 : 스텔라 포르투나의 여덟 번 인생
저자 : Juliet Grames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9년 봄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HarperCollins Lead Pick for summer 2019로 선정!
*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리투아니아 판권 계약

스텔라 이모는 다른 모든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는 존재다. 지금은 100세이지만, 일흔에 당한 사고 때문에 괴팍하고 걸핏하면 성질을 부리는 데다 고집을 피우는 성마른 노인이 되고 말았다. 그 사건은 일명 '가지 사건'이었다. 가족들이 '그 사고'라 부르는 일을 당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들의 말에도 가까스로 살아 났지만, 변해버린 성격 때문에 자매인 티나 이모와도 인연을 끊어버리게 되었다. 수십년을 가족들로부터 은근히 비난 받는 사람이 바로 스텔라 이모였다.

"너네 이모가 '가지 공격 사건' 때문에 죽을 뻔한 건 알고 있니?" 티나 이모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 말 한 마디에, 조카는 스텔라 이모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파헤치기 시작한다. 사건 이전 스텔라 이모의 삶, 변해버리기 이전의 시간들을 알게 된 조카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고 스스로도 믿기 힘든 100년의 자취를 기록하기로 결심한다.

일곱 번, 혹은 여덟 번 죽을 뻔했지만 살아 남은 사람, 마지막 사고 이후 한 몸처럼 지내던 여동생과 두 번 다시 말을 섞지 않은 노인, 엄마에게 '저주 받은 아이'로 낙인 찍혀버린 스텔라 포르투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썼다는 설명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그 여덟 번의 사고를 각 장마다 순서대로 살펴본다. 스텔라가 기적처럼 이겨낸 치명적인 사고 이야기 속에는 전쟁과 이민, 폭력으로 얼룩진 한 사람과 가족들의 관계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지금은 미국 코네티컷 주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서로 4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두 집에 각각 살고 있지만, 스텔라와 티나의 고향은 머나먼 이탈리아에서도 칼라브리아 주의 산 속 마을 레볼리였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모두 겪는 동안 가난은 자매의 집안 형편을 점점 더 갉아 먹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가난에 시달리다 결국 아버지는 돈을 벌어 오겠다며 남미로 떠났다. 엄마와 함께 버려진 스텔라와 티나는 다니던 학교까지 억지로 그만두고 올리브 농장에서 일을 해야 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늘 강인하고 생기가 넘치는 동시에 어린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쳤던 스텔라는 얌전하고 고분고분하면서 성실한 여동생 티나를 극진히 돌보았고 티나도 언니를 누구보다 의지했다.

하지만 아무리 굳센 스텔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고가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지글지글 끓는 식용유에 심하게 데여 화상을 입은 일부터 시작하여 큰 딸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자 엄마의 머릿속에 악마의 저주가 내려진 것이 틀림 없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사악한 존재의 눈 밖에 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긴 엄마의 말처럼 살면서 목숨을 건 수술을 두 번이나 받고 뇌출혈로 뇌엽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받은데다 질식 두드려 맞아 뇌진탕을 겪고, 성폭행을 당하고, 질식사할 뻔하고 의도치 않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뻔한 스텔라의 연이은 사고는 정말 악마의 소행일까?

이모의 삶을 기록한 조카인 이 소설의 화자는, 가족들은 모두 스텔라 이모의 불운에 초점을 맞추지만 보통 그런 사고 한 번이면 진작에 목숨을 잃었을 일을 여덟 번이나 견뎌낸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이 아니냐고 반박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난 뒤에 스텔라 이모가 티나 이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모두 멀리하고 자신만의 세상 속에 갇혀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90세가 넘은 티나 이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텅 빈 집에 혼자 살면서 거의 하루 종일 길 건너 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다.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으려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늘 건너다보고, 언니가 오전에 볕을 쬐러 나왔다가 잠깐 몸을 누이러 방으로 들어가면 재빨리 점심을 만들어서 언니네 뒷문으로 들어가 부엌에 몰래 냄비를 놓고 나온다. 그것도 매일! 스텔라 이모는 일어나서 누가 만들어놓은 줄도 모르는 그 음식을 먹고, 다른 조카가 냄비를 수거해서 티나 이모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두 자매는 태어나 24년을 한 방에서 살았고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할 때 비로소 다른 집에 살았다. 둘 다 결혼한 후에도 기어이 같은 동네에 집을 얻어서 매 끼니를 거의 함께 하고 동네방네 오가는 소문을 함께 쑥덕대면서 40년을 붙어 지내던 언니와 동생이 어쩌다 이렇게 서로 아는 척도 할 수 없는 사이가 됐을까? 두 할머니의 조카는 스텔라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꽁꽁 숨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가족들이 '미친 스텔라'라고 조롱하듯 불러 대는 불쌍한 이모의 삶에 얼마나 많은 비밀과 고통이 뭉쳐져 있는지 그녀의 생사를 오간 사고들을 토대로 하나씩 보여준다.

가부장적 사회의 폐해와 씻을 수 없는 전쟁의 공포와 상처 그리고 이민자의 고투를, 오직 가족만이 선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의 가치와 함께 그린 따뜻한 이야기다. 작가의 맛깔 나는 표현과 사건 기록처럼 여덟 건의 사고를 나열한 구성은 읽는 내내 흥미를 유발하고 화자인 조카가 실제 역사가이고 스텔라 포르투나가 실존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저자 소개>

줄리엣 그레임스(Juliet Grames)는 Soho Press의 부발행인으로 일하면서 평단의 호평을 받은 범죄 소설들을 편집했다. 'Words Without Borders'에도 글을 기고해 왔으며 'Anderbro'에서 공개된 글 'Monologue'는 글래스 여성 상(Glass Woman Prize)을 수상하고 오픈시티 트로피(OpenCity Trophy)에서 2위를 차지했다.

Upd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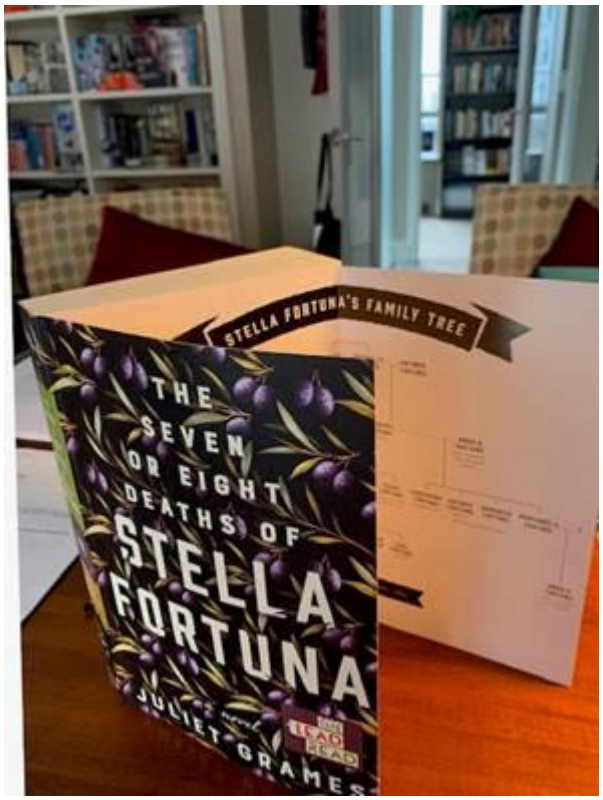
THE SEVEN OR EIGHT DEATHS OF STELLA FORTUNA

Juliet Gra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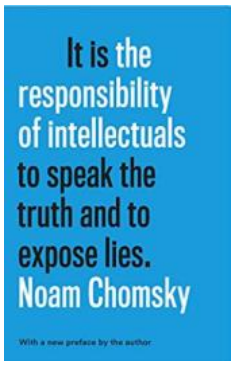
HarperCollins announced that *Stella* has been chosen as the company's **Lead Read pick for Summer 2019**. Each season the corporation picks one title to get an all-company push in North America and we are thrilled that this honor has landed with Juliet. What does this mean exactly?

- A seven city author tour.
- Major advertising budget both in print and on-line.
- Bookseller dinners.
- Beautiful galleys.
- Strong incentives for book chains and independents.
- A special booklet containing a reading group guide, recipes, a family tree, and a map.
- And more...basically everything that a major publisher such as HarperCollins can bring to bear for a debut will happen here. It's going to be exciting.

So far rights have been sold to: Hodder (UK & BC), Droemer (Germany), Luitingh-Sijthoff (Netherlands), Presses de la Cite (France), Eksmo (Russia), HarperCollins (Italy), Otwarte (Poland), Alianza de Novelas (World Spanish), Alma Littera (Lithuania).



NON-FICTION



제목: THE RESPONSIBLITY OF INTELLECTUALS
가제: 촘스키가 말하는 지식인의 책임
(부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밝혀라)
저자: Noam Chomsky
출판사: The New Press
발행일: 2017년 11월 7일
분량: 160 페이지
장르: 에세이

*** 「뉴스위크」 올 가을 읽고 싶을 만한 논픽션 14권 중 한 권으로 선정**
*** 초판 발행 이후 50년 만에 개정판으로 돌아온 노암 촘스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에세이 모음**
*** "지구상에서 외교 정책에 관한 미국의 목소리 중에 그의 글이 아마도 가장 많이 읽혔을 것이다"**
– 「뉴욕타임스 북 리뷰」

한 사회에서 소위 '지식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열아홉 살 대학원생이던 1947년에 철학자이자 사회비평가, 당시 정치 분야 간행물의 편집자로 활발히 활동하던 드와이트 맥도널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쓴 글에 깊은 영향을 받은 노암 촘스키는 그로부터 20년 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7년에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그리고 '지식인은 정부의 거짓을 드러내고 숨은 의도를 찾아 분석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는다. 도덕적인 행위로 포장된 위선적 정치를 꼬집고 베트남 전쟁에서 자행된 수치스러운 정책을 폭로하면서 지식인이 이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밝힌 당시의 에세이가 50년 만에 업데이트되어 다시 출간되었다. 앞서 발표된 글을 1부에, 새로 추가된 내용을 2부에 담은 이 개정판은 지식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에 맞서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담겨 있다.

저자는 지식인이라는 다소 모호한 정의에 누가 포함되고 누가 포함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사회에서 지식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특권이란 사회규범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며, 지식인은 이 기회를 책임감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지식인이 손에 쥔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어디로 향할 지는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올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우려는 일단 접어두고 권력자, 혹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조직과 체계에서 정한 규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경우 권력자가 내린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비판적인 판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복사한 것처럼 철저히 따르고 마치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참 많은 지식인들이 이 후자의 길을 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도덕적인 갈등, 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골치 아픈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칠 수 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슬쩍 발을 뺄 수 있는 길이다. 저자는 권력을 거머쥔 정부가 정한 규칙과 체제에 반대하는 인사를 모두 '반체제인사'로 규정하고 건강한 비판도 일체 배제하거나 묵인하려고 애쓰는 현실과 이에 동조하여 여론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적한다. 권력기관이 정한 정의와 용어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 정부의 숨은 의도를 알건 모르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을 따르고 수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의 태도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불필요한 전쟁과 양측 모두의 엄청난 희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저자는 이와 같은 사례를 깊이 있게 제시하면서 지식인이 해야 할 역할, 선택의 기로에서 택해야 하는 길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대중을 이끄는 리더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되 그들이 놓친 것, 혹은 외면하려 하는 것을 집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밝힌 놀라운 실제 사례와 냉철한 분석을 통해 깨닫게 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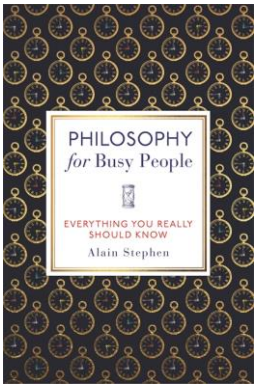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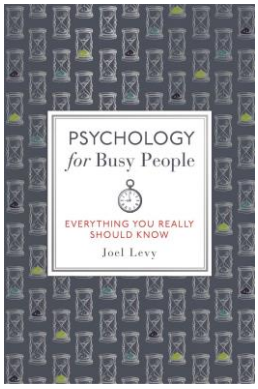
서문 - 노암 촘스키
1부. 지식인의 책임
2부. 돌아온 지식인의 책임: 특권을 이용하여 국가와 맞서는 것

<저자 소개>

노암 촘스키(Noam Chomsky)는 MIT 언어학과, 철학과 교수로 현대 언어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광범위하게 이끌어 온 언어학자다. 『Understanding Power』, 『On Anarchism』, 『The Essential Chomsky』 등 100권 이상의 책을 쓴 저술가이기도 하다.

제목 : PHILOSOPHY FOR BUSY PEOPLE
/ PSYCHOLOGY FOR BUSY PEOPLE
가제 : 바쁜 현대인을 위한 철학
/ 바쁜 현대인을 위한 심리학
저자 : Alain Stephen / Joel Levy
출판사: Michael O'Mara Books
발행일: 2019년 4월 18일
분량 : 각 약 192 페이지
장르 : 인문학





1. 바쁜 현대인을 위한 철학(PHILOSOPHY FOR BUSY PEOPLE)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니 금욕주의, 평등주의와 같은 단어를 대부분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척척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걸 굳이 알아야 하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방송이나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가끔 툭 튀어 나오는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가 멀게만 느껴지고, 상식적인 수준 정도는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철학 이론과 철학자들의 사상을 정리한 책이 완성됐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방대한 시간을 거쳐 확립된 철학 이론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주요 이론가와 주장을 도덕, 윤리, 철학, 미학, 종교, 정치, 지식, 사유 등 이론의 유형에 세분하여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서양철학을 연대별로 정리하여 길게는 2,000년 전에 등장한 이론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현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 철학을 잘 아는 사람보다 철학에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 타깃으로 하여 쉽게 풀어 써서 온갖 '~주의'며 '~학' 등 단어만 들어도 골치 아프고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이론들을 찬찬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요한 인물들의 연대도 짤막하게 정리한다. 철학이 대체 왜 필요한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은 물론 살면서 누구나 부딪히는 큰 고민들을 피하기보다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생각해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철학의 묘미와 큰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요한 아이디어와 핵심만 골라 압축적으로 잘 정리한 철학서다.

<목차>

- 미정

<저자 소개>

알레인 스티븐(Alain Stephen)은 철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프리랜서 저술가, 교사로 활동 중이다. 「Samizdat Literary Journal」의 창립자 겸 편집장을 맡고 있다. 2만 6,000부 이상 판매된 『This Book Will Make You Think』과 2만 부 이상 판매된 『Why We Think the Things We Think』 등 주로 철학과 역사, 대중문화에 관한 책을 썼다.

2. 바쁜 현대인을 위한 심리학(PSYCHOLOGY FOR BUSY PEOPLE)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분석하거나 심지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심리학에 관한 관심도 한층 더 높아졌다. 아직도 빙산의 일각 정도도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원리와 행동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무엇일까? 생물학과 심리학을 모두 공부한 저자는 대인관계, 행복, 정신질환, 노화 등 심리학과 관련된 주제를 기준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등장한 중요한 심리학 이론과 주요 인물들의 업적을 정리했다. 프로이드와 융이라는 대표적인 심리학자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2,5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이미 일종의 꿈 치료가 실시되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어 사람의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들어가려는 놀라운 시도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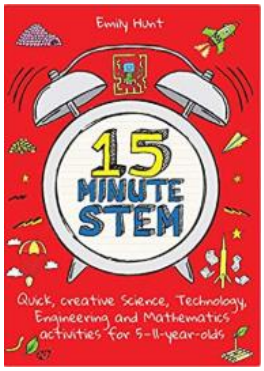
심리학은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뇌가 없으면 마음도 없으므로 뇌, 그리고 신경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특성도 심리학의 기본적인 지식에 포함된다. 이에 저자는 신경계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고 각 요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뇌의 각 부분마다 정해진 기능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어떤 연구를 통해 이런 기능들이 밝혀졌는지도 함께 설명한다. 구조와 기능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어떤 실험과 연구로 알아낼 수 있었을까? 형체가 없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한 방식과 함께, 무의식, 의식, 수면, 최면 등 가장 미스터리한 기능은 뇌의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조정될까? 과학적인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전문 용어를 나열하여 읽기도 부담스러운 글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뇌와 신경계, 마음의 구조와 기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현대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심리학적인 이상 증상과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간결하게 설명한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관심 있는 모든 일반인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서다.

<목차>

- 미정

<저자 소개>

조엘 레비(Joel Levy)는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심리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 과학과 역사 분야의 저술가,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영국에서 2만 3,000부 이상 판매된 『Why We Do the Things We Do』와 영국에서 1만 5,000부 이상 판매되고 전 세계 10개 언어로 번역된 『Freudian Slips』 등 10권 이상의 책을 썼다.



제목 : 15 MINUTES STEM
가제 : 15분 STEM
(부제 : 5-11세를 위한 간단하고 창의적인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공부)
저자 : Emily Hunt
출판사: Crown House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9월 28일
분량 : 64 페이지
장르 : 교육

* **"과학과 공학을 기반으로 한 재미 있고 흥미로운 활동들이 가득한 책. 명확한 설명과 단계별 지도 방법이 나와 있어서 부모들은 집에서, 교사들은 교실에서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시도할 수 있다" - 왕립 공학학회 교육프로그램 대표, 린다 만(Lynda Mann)**
* **"금방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장기적으로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가 꽉 차 있는 책이다" - 『Educating Ruby』의 공저자, 빌 루카스**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뜻하는 영어단어 첫 글자를 따서 'STEM'이라 통칭되는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경제 성장에 주축이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초등 교육부터 STEM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 정부, 산업계, 학계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이 미래에 보다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다양한 인재가 STEM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 분야와 친숙해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는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초등 교사나 학부모 모두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아이들 모두가 쉽고 재미 있게 즐기면서 배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교사이자 지역 활동과 블로그를 통해 STEM 교육을 열정적으로 알리는 일에 힘써온 저자는 이 책에서 이 고민을 해결해줄 40가지 활동을 제시한다. 귀여운 일러스트, 사진 자료가 가득한 페이지마다 5세부터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주요 원리를 쉽게 깨우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흥미로운 활동들이 상세히 나와 있다. 모두 저자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 다듬어진 활동들로,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딱 15분이면 끝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알찬 내용이 채워져 있다.

우주 탐험,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고 보존하는 것, 디지털 혁명까지 현대사회를 이끄는 핵심 분야는 대부분 STEM에 속하고 그만큼 관련 지식과 기술의 수요나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는 추세다. 교과목이나 세부 전공으로는 이 네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만 전부 하나로 연관되어 있고 문제해결 방식의 핵심은 동일하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이론과 문제풀이만 가르치는 것보다는 네 분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안다면 아이들이 이와 같은 연계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이끌 수 있다. 하지만 교사나 학부모가 STEM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경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왠지 모를 거리감을 갖게 되고,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한 후에도 일상 학습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자는 이런 교사와 학부모들을 위해, 긴 시간 미리 공부하고 어렵게 준비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가정이나 교실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15분만에 놀이처럼 STEM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을 고안했다. 난이도와 소요시간, 실제 활용 가능성 모두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활동들로, 아이들이 평소에 궁금하게 여긴 주제들은 물론 '이글루는 왜 돔 형태일까?', '밀도가 다른 액체가 섞이면 어떻게 될까?' '식물은 어떻게 뿌리에서 저 높은 가지에 달린 잎까지 물을 빨아들일 수 있을까?'와 같이 너무 익숙해서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알고 보면 쉽고 재미 있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 큰 깨우침과 함께 즐거움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된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 공간 지각능력 등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정보가 가득한 교육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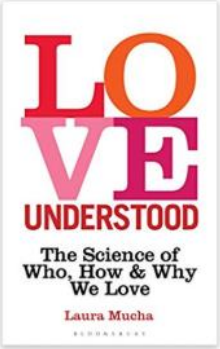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5분 STEM 교육의 사례 / 건강하고 안전한 활용법, 그 밖에 몇 가지 정보
1. 공기로 움직이는 자동차
2. 극지공학
3. 물방울 기하학
4. 새총 쏘기
5. 그림자 쫓아가기
6. 춤추는 소금
7. 자연의 패턴 해독하기
8. 외딴 섬의 뗏목
9. 동전에 떨어진 액체
10. 달걀 낙하산
11. 병 속에 들어간 폭죽
12. 초록색 동전
(이하 생략, 총 40장과 부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에밀리 헌트(Emily Hunt)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초등학교 교사로 브리스톨 지역에서 STEM 교육을 열정적으로 홍보해온 교육자다. 블로그(www.howtostem.co.uk)를 통해서도 초등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STEM 활동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 왔다.

제목 : LOVE, FACTUALLY
가제 : 사랑에 관한 사실
저자 : Laura Mucha
출판사: Bloomsbury Sigma
발행일: 2019년 1월 29일(영국, 미국, 호주 동시 출간)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과학



*** 40개 이상의 나라에서 저자가 직접 만난 8세부터 95세까지 낯선 사람들의 가장 내밀한 사랑 이야기를 과학, 심리, 철학적으로 분석한 책 - 최고의 수수께끼, 사랑에 관한 특별한 해석**

시인, 철학자, 예술가는 물론 과학자들까지, 수백 년 동안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포괄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탐구했다. 그럼에도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두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다. 무엇이든 알지 못하면 겁이 나게 마련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나 재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든다. 심리학자들은 사랑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다수는 자신의 사랑에 관하여 툭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솔직하게 다 드러내길 꺼려한다. 어떤 감정보다 공감하기 쉬우면서도 사람마다 격차가 가장 큰 감정, 그래서 더 알쏭달쏭한 사랑이라는 감정에 어릴 때부터 큰 관심을 쏟았다는 저자는 학업을 마친 후 전 세계를 돌면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했다. 40개국이 넘는 나라를 여행하면서 공항, 시장, 카페, 음식점, 병원, 도서관, 버스정류장, 기차 등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들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한 것이다.

여덟 살 꼬맹이부터 한 아내와 75년을 함께 산 95세 할아버지까지, 성별, 직업, 나이, 성적 지향성이 각양각색인 사람들이 들려주는 각자의 사랑 이야기를 아무런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듣고 기록한 저자는 이 무수한 형태의 사랑에 담긴 감정을 다각도로 통찰한다. 특히 저자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에 오류가 존재하고, 특히 사적인 감정은 더욱 그와 같은 편향이 생기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학과 심리학에서 밝혀진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과 심리적 성향에 관한 이론을 적용시켜 사랑을 분석한다. 동시에 인간의 감정을 기계적으로 쪼개고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전한다. 첫 눈에 반하는 사랑은 정말로 존재할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이 변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변할까? 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외도를 할까? 성적인 끌림과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 조건 없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일까? 이제 이 사람과는 끝내야 할 때다, 라는 시점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까? 저자는 짧게는 4분, 길게는 세 시간 동안 이어진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정답은 없는 사랑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다. 각 장은 저자가 들은 사랑이야기로 문을 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 또는 감정에 관하여 문학과 학계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한 내

용들을 종합한 결과로 이어진다. 부정한 배신 행위의 경우, 그것이 자신의 일인 경우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까운 이들에게 털어 놓은 뒤 '원래 다 그렇다'거나 '안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대답을 들어도 믿기지 않을 수 있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저자는 다들 행복하게 잘만 살아가는데 내가 택한 사랑만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남자고 여자고 가릴 것 없이 자신이 바람을 피운 적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30 퍼센트도 채 안 된다고 밝혀졌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려준 자신의 부정행위나 배신을 당한 사연을 공유하며 왜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생겨나는지,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는지 살펴본다.

가장 일상적이고 흔한 경험이지만 가장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감정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조명한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머리말
1장. 부정
2장. 그래서, 사랑은 정확히 뭘까?
3장. 애착
4장.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것
5장. 사랑을 찾는 것
6장. 사랑을 찾지 않는 것
7장. 과도한 기대
8장. 헌신
9장. 부정 (또 다시)
10장. 일부일처제에 관하여
11장. 대단한 싸움
(이하 생략, 총 14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로라 무차(Laura Mucha)는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철학과 심리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수상 경력이 있는 시인이자 강연자, 방송인으로도 활동해 왔다.

제목 : LA PASSIONE
가제 : 라 파시오네: 정렬의 이탈리아
저자 : Dianne Hales
출판사: Crown Archetype
발행일: 2019년 4월 16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여행/역사

***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은 저널리스트가 소개하는 이탈리아의 매력 - 서양 문화의 탄탄한 기틀이 된 이탈리아의 정열이 만들어낸 놀라운 역사**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빼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오페라에는 베르디가, 훌륭한 패션에는 아르마니가 반드시 언급된다. 맛있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에 파스타, 젤라또, 피자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음식이 빠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인류 최초의 대학교, 최초의 은행과 도서관도 모두 이탈리아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문학, 예술, 음악, 영화에 이르기까지 서양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이 작은 나라의 엄청난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30년 전,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아무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들른 이탈리아에 푹 빠져 지금까지도 매료되어 있다는 저자는 찾아갈 때마다 더 깊이 심취하게 되는 이탈리아만의 독보적인 매력은 '정열'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새로운 것을 찾고,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먼 옛날부터 이들의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라, 절대로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맹렬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이탈리아 곳곳에서 본 것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시스티나 성당 앞에서, 푸치니의 아리아를 들으면서, 페라리의 엄청난 엔진 소리에 귀 기울이고 브루넬로 와인의 깊은 맛을 음미하면서 선명하게 느낀 이탈리아만의 열정과 그것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취가 소개된다. 저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 당기는 이탈리아의 열정, 정작 그 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열정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일상이 되어 특별한지조차 모르는 이 생기 넘치는 힘을 유명한 곳, 잘 알려지지 않은 곳, 거장, 무명의 예술가, 저명한 인사, 일반인에게서 모두 발견한 저자의 생생한 목격담과 역사적 분석이 잘 조합된 여행기이자 역사서다.

우연한 첫 방문 이후 사방에서 쏟아지는 낯선 언어가 거부감보다는 잠자고 있던 호기심을 흔들어 깨워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이탈리아어 공부부터 시작했다는 저자는 '마법의 주문'처럼 느껴진 그 언어에도 깊이 빠져들었다. 그 과정을 책으로 쓴 『La Bella Lingua』로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기사 작위까지 받은 후 모나리자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예술에 한 동안 빠져들었고, 누군가 '이제 이탈리아는 지겹지 않냐'고 물으면 오히려 그 질문에 화들짝 놀랄 만큼 '이만하면 충분히 경험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저자는 대체 어디서 이런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 나오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그 의문을 품은 채 신화 속 신들이

가득한 장소를 몇 시간이고 헤매고, 평생 초콜릿, 와인, 치즈 하나만 만들어온 장인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물을 맛보고, 시칠리의 전통적인 '고난주간' 행사에 참여하고, 베니스 축제에서 신나게 즐기고, 이교도 사원, 포도밭, 실크 공장, 영화 세트장, 패션 매장 등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찾아가서 경험한 결과 저자는 이탈리아인들의 강렬한 열정이 그 모든 성취의 뿌리임을 깨달았다고 전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간직되어 있을 검투사 같은 용맹함과 시인 같은 섬세함, 사랑 하나에 모든 것을 바치고 아름다운 것에 무작정 빠져드는 맹목적인 감정을 깨우는 순간들과 마주치게 되는 특별한 이야기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아파시오나타(appassionata: '열정에 사로잡히다')에 관한 고백
1. 정열의 이탈리아
2. 신과 함께 헤엄치다
3. 전사부터 사랑꾼들까지
4. 최고의 러브스토리
5. 피어 오른 로맨스
6. 열정의 싹
7. 신성한 것과 불경한 것
8. 핸드 메이드
9. 이탈리아의 맛
10. 열정이 담긴 포도
(이하 생략, 총 15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다이앤 헤일스(Dianne Hales)는 수상 경력이 있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Parade」, 「Ladies Home Journal」, 「Working Mother」, 「American Health」 등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아마존 '올해의 베스트 도서'이자 6개 언어로 번역된 『Mona Lisa: A Life Discovered』를 비롯해『La Bella Lingua』 등 40 편이 넘는 책을 썼다.

제목 : ELEMENTARY
가제 : 원소
(부제 : 쉽게 배우는 주기율표)
저자 : James Russell
출판사: Michael O'Mara
발행일: 2019년 6월 13일
분량 : 192쪽
장르 : 과학/역사

*** 2019년 '세계 주기율표의 해'에 출간될 화학의 가장 뛰어난 업적, 주기율표의 탄생 배경과 118개 원소의 신기하고 흥미로운 특징을 정리한 책**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이 질문은 인류 문명이 처음 형성된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단서도 알 수 없었던 만큼 신비로운 의미와 저마다의 추측만 가득했던 길고 긴 역사를 지나 지금으로부터 겨우 몇 세기 전인 1860년대가 되어서야 그 비밀이 마침내 밝혀졌다. 러시아의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 덕분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별 특징 없이 알 수 없는 알파벳 기호가 네모난 표에 칸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만 보이는 이 단순한 표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들이 각각의 특징에 따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확한 패턴을 토대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특징까지 파악할 수 있는 놀라운 정보가 담겨 있다. 고대 연금술을 화학이라는 과학의 한 분야로 탈바꿈시키고 세상을 이루는 '무언가'가 신비로운 물질이 아닌 구체적이고 형체가 있는 원소라는 사실을 밝혀내며 현대 화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으로 일컬어지는 주기율표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다. 멘델레예프가 맨 처음 어떻게 원소의 규칙성과 특징을 파악해서 이 표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보면 정밀한 실험이 아닌 가장 '비과학적인' 상상력이 출발점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저자는 이 흥미진진한 주기율표의 역사와 함께 118개의 원소를 하나하나 모두 주기율표 번호 순서대로 소개하고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누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리한다.

주기율표의 탄생은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원소인 수소와 헬륨, 리튬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빅뱅과 함께 산소와 탄소가 먼저 생겨나고 여기에서 형성된 이 세 가지 원소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시초이자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시켜 온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주기율표에는 이 같은 필수 원소뿐만 아니라 다소 희한하고 기발한 용도로 활용되어 온 독특한 원소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 예로 충치 예방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수돗물에 넣기도 하고 치약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불소가 1930년대, 듀퐁 사의 한 연구자를 통해 우리가 테플론이라 부르는 아주 특별한 플라스틱 물질의 원료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소개된다. 열에 강하고 엄청나게 유연한 이 테플론은 프라이팬 코팅물질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방수 기능을

활용한 비옷 등의 소재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뜻밖의 사실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각기 다양한 기능을 하는 원소마다 녹는점과 끓는점, 원자번호, 색이 모두 다르지만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기본적인 특징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고, 이 표가 무한대로 이어지더라도 주기율표 상의 번호만으로 대략적인 특징을 예측할 수 있다. 저자는 이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각각의 원소에 붙여진 이름에 담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흥미로운 사연 혹은 역사도 함께 소개하고 주기율표가 탄생한 이후 화학을 비롯한 과학 전체가 얼마나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원소에 과학이 왠지 꺼려지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유익한 과학서다.

<목차>

머리말: 멘델레예프의 놀라운 아이디어
1. H - 수소
2. He - 헬륨
3. Li - 리튬
4. Be - 베릴륨
5. B - 붕소
6. C - 탄소
7. N - 질소
8. O - 산소
(이하 생략, 118개 원소로 구성)

<저자 소개>

제임스 러셀(James Russell)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영국 오픈유니버시티에서 비평이론을 공부한 후 동 대학에서 강의를 해 왔다. 저서로는 『A Traveller's Guide to Infinity』와 공저자, 편집자로 참여한 『The Traveller's Guide to the Cosmos』 시리즈 등이 있다. 대중과학서 편집자로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